

##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김범구\*\* · 조아미\*\*\*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의 잠재계층을 파악하여 그 특성과 구조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출청소년 쉼터 등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6월부터 7월 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설문지를 수집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질문지 48부를 제외한 총 50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유사한 성격을 가진 관측자를 동일한 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에 속할 확률을 찾아내어 계층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MR, BLRT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에서 4개의 잠재계층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잠재계층이 최적의 잠재계층 수로 확인되었다. 3개 잠재계층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특별한 계획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문항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미결정중심형',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과 취업준비에 응답할 확률이 모두 높은 '미래준비형', 복학 및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준비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진학준비형'으로 유형화 되었다. 각 유형의 빈도는 미결정중심형 27.1%, 미래준비형 58.3%, 진학준비형 14.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잠재계층 유형에 따라 각 유형에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학업중단 청소년, 잠재계층분석,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

\* 이 연구는 김범구의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및 2013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제1저자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교신저자, choami@mju.ac.kr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업중단 청소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교육통계서비스, 2013),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사회적 및 개인적 측면에서 문제를 유발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력부족으로 인해 다른 청소년들보다 적은 교육을 받아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들은 인증된 학위가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고용주에게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보여줄 기회가 제한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국가의 공적서비스에 대한 과다지원을 유발할 수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학교를 중퇴함으로써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업중퇴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박현선, 2003). 또한 사회범죄의 증가, 직업안정의 파괴, 세대 간 교류 감소, 문화단절 등과 같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성운숙, 2005; Rumberger, 1987).

국내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추가 교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제외하고 8천1백만원의 생애 근로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6백2십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남기곤, 2011). 미국의 경우에도 학업중단 청소년은 같은 시기에 졸업한 청소년보다 건강보험의 가입률이 적고, 조기 사망과 같은 건강비용의 문제가 크다(Davidoff & Kenny, 2005).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성인의 연소득은 13,400달러인 반면, 고졸자의 수입은 21,700달러로 이들 간에는 8,300달러의 소득차이가 있다(Sum, khaitwada, Mclaughlin & palma, 2011). 또한, 학업중단자의 25%가 빈곤선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비해, 고졸자는 14%에 불과하였으며, 한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평생에 걸쳐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은 3,350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Rumberger, 2011).

학업중단은 청소년기가 지난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학업중단자의 사회참여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25세에서 55세의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37%만이 투표에 참여

한 반면, 고졸자의 경우에는 52%, 대졸자는 76%가 투표에 참여하였다(Rumberger, 2011). 또한,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성인은 3분의 1정도만이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데 반해, 고졸자는 반 이상, 대졸자는 3분의 2 이상이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umberger, 2011).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일시적으로는 학교에 가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다는 생각에 해방감을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료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며 불규칙하고 무의미한 생활을 지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행동이 오히려 악화된다고 하였다(권해수, 서정아, 정찬석, 2007; 성윤숙, 2005;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에 여러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변화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박현선(2003)은 학업중단 이후 보다 큰 좌절을 경험했거나 중퇴 이후 아예 특별한 시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소일하고 소위 바닥까지 추락하는 힘겨운 경험을 하는 경우에 중퇴라는 결정에 대해 동요하고, 후회하게 된다고 하였다.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의 적응태도는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향후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박현선(2003)은 중퇴 이후 적응성패에 대해 중퇴에 대한 자발성 정도와 중퇴 이후 생활에 대한 준비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퇴 이후의 적응태도를 강조하였다. 또한 안현의, 이소영과 권해수(2002)는 우리나라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둘 뿐이지 학업이나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이 어렵고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주제가 6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김범구, 2012). 이는 그간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연구가 학업중단 원인에 대한 변인을 도출하고자 함으로써, 학업중단의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이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8.2%로 매우 미약하다. 이에 대한 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퇴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성윤숙, 2005; 주영신, 2007), 사례연구를 통한 적응 연

구(박현선, 2003; 박현선, 2004; 오혜영 외, 2011; 조규필 외, 2011),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손순용, 2005;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2007), 진로유형 연구(이경상, 조혜영, 2005), 정책 연구(윤철경, 2010)가 대부분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실증연구를 통한 향후 계획을 조사하고 유형을 구분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형화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각각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형화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연구자가 사전에 학업중단 이후에 대한 유형을 정해놓고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상과 조혜영(2005), 윤철경(2010)의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숙영과 남상인(1997), 주영신(2007)이 살펴본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에 대한 연구는 소규모 인원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청소년이 가진 유형을 명명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향후 계획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고, 응답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의 계획에 대해 응답한 패턴을 범주화하고, 그 계층에 속할 확률을 찾아내어 귀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 분야에서는 가출(홍세희, 노연경, 박민선, 2010), 인터넷 일탈(조윤주, 2010), 학교 부적응(황성혜, 2010), 비행(이상균, 2009), 활동(조아미, 신태수, 2012) 등에 대한 다양한 잠재계층 연구가 수행되어, 연구대상 청소년을 계층별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연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재계층 분석을 시도하여 계층별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계획에 일정한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각 계층의 특성을 유형화하며,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업중단 청소년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은 다양하며 복잡적이다.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개인특성, 가정특성, 또래특성, 학교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특성은 충동조절 능력 부족, 높은 공격성, 낮은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 수준이 낮고, 미래기대 수준이 낮으며,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권위에 대한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배영태, 2003; 신현숙, 구본용, 2002; 양미진 외, 2007; 이숙영, 남상인, 1997;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정특성은 가족관계와 가족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족관계 특성은 자녀에 대한 낮은 성취기대, 부적절한 양육태도, 가족의 낮은 화목도, 가족 간의 대화 단절의 특성이 있다(고기홍, 2003; 김순규, 2004; 박창남, 도종수, 2003; 서우석 외, 2007; 양미진 외, 2007; 이숙영, 남상인, 1997; 이자영 외, 2010; 조아미, 2002; Dupper, 1993; Franklin, 1992).

또한, 가족환경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폭력 및 약물 사용, 낮은 소득,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편부모 가족·조손 가족 등의 구조적 결손, 가족의 학업중단 경험이 학업을 중단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고기홍, 2003; 김순규, 2004; 박창남, 도종수, 2003; 서우석 외, 2007; 신현숙, 구본용, 2002; 양미진 외, 2007; 이숙영, 남상인, 1997; 이자영 외, 2010; 조아미, 2002; Dupper, 1993).

학업중단 청소년의 또래특성은 비행또래와 접촉이 높은 특성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비행또래와의 접촉이 높고, 재학생에 비해 중퇴한 친구들이 많고 비행또래 또는 중퇴또래와 어울리거나, 재학생에도 학교를 중퇴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교 밖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학업중단률이 높다(김경식, 1997; 배영태, 2003; 서우석 외, 2007; 신현숙, 구본용, 2002; 이숙영, 남상인, 1997; 조아미, 2002).

불량친구가 아니더라도, 또래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소외감을 느끼거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의 원인이 된다(서우석 외, 2007; 이숙영, 남상인, 1997; 이자영 외, 2010; 조아미, 2002).

학교관련 특성으로는 공부하기가 싫거나, 교사와 잘 지내지 못하고, 학업성취 수준이 낮으며, 무단결석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강석영, 양은주, 방나미, 2011; 김경식, 1997; 서우석 외, 2007; 이숙영, 남상인, 1997; 이자영 외, 2010; 조아미, 2002).

##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업중단 원인의 측면에서 구분한 연구는 많은 편이나,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이나 활동의 측면에서 이들을 구분한 연구는 제한적인 편이다. 이숙영과 남상인(1997)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현재하고 있는 일과 현재 상태에 따라 학업중단 유형을 정착형(진학청소년, 직장 취업청소년, 취업준비 청소년)과 비정착형(소년원 수용 청소년, 보호관찰 중 청소년, 요양중인 청소년, 방치된 청소년, 유흥업소 취업 청소년, 가출청소년, 정신질환 청소년)으로 구분했다.

이경상과 조혜영(2005)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향후 계획을 조사하여 5가지 유형인 순수진학형, 취업형, 아르바이트형, 진로미결정형, 기타형으로 구분하였다. 순수진학형은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자기가 원하는 학업을 마치고 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정규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유형이고, 취업형은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려는 생각보다는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려고 하는 유형이다. 아르바이트형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면서 독학이나 검정고시로 진학을 준비하거나 취업할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만을 하며 지내겠다는 유형이고, 진로미결정중심형은 진로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한 유형이다.

주영신(2007)은 중퇴경험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중퇴 이후의 과정을 돌파구 모색형과 불만족 안주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윤철경(2010)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학습형, 취업·알바형, NEET<sup>1)</sup>형으로 구분하였고, NEET형

1) NEET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줄인 것으로 15세에서 34세 사이의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무업자를 의미한다.

을 다시 은둔형, 배회형, 소일형으로 세분화 하였다.

이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청소년이 현재 하는 일과 향후 계획에 따라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유형은 이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거나 소수의 사례에서 도출되어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실제적인 유형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특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숙영과 남상인(1997)은 정작형을 진학 또는 취업을 했거나 취업준비를 위해 기술 학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유형이며 가족이나 학교에서 내면화한 가치관을 회복하여 인생설계를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비정작형은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소년원, 보호관찰소, 병원 등에 수용되어진 관리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혀 보호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는 특성이 있었다.

주영신(2007)은 사례연구를 통해 돌파구 모색형은 학업중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중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 또래, 지역사회의 지지 속에서 관계 변화, 정보 수집, 심리적·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아 직업훈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불만족 안주형은 중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현재를 힘들어 하고,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거부하며, 경제적 불만족과 가정불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특성이 있었다.

이경상과 조혜영(2005)은 설문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유형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순수진학형이 45.3%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형(35.6%), 진로미결정형(7.5%), 기타형(6.9%), 아르바이트형(4.6%)순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각 유형의 세부비율을 살펴보면 순수진학형은 상급학교로 진학 예정(18.2%), 학교복귀(14.9%), 진학을 위한 입시 학원 등록(5.8%)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형은 취업예정(28.2%), 취업과 진학 병행(3.0%), 직업교육훈련(2.3%)순으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형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7.5%)이었으며, 기타형은 군입대(3.9%), 기타(1.9%), 가업도움(0.6%)순으로 나타났다.

윤철경(2010)은 설문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유형에 따른 비율과 각 유형에 따라 성별, 부모님의 결혼상태, 연령, 가정형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각 유형의 비율은 학습형(41.5%), NEET/배회형(21.0%), NEET/소일형(13.2%), NEET/은둔형(12.7%), 취업·알바형(11.7%)순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특징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NEET/배회형은 남성(16.5%)에 비해 여성(25.3%)의 비율이 높고, NEET/소일형은 여성(5.3%)에 비해 남성(20.2%)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NEET/소일형에서 별거(41.7%) 비율이 높았으며, 학습형은 이혼(29.7%)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NEET/배회형이 평균 16.0세로 가장 낮았으며 취업/알바형이 18.0세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7점 척도로 구성된 가정형편에 대한 응답은 학습형이 3.48점으로 유형 중 가정형편이 가장 좋았으며, NEET/은둔형은 2.81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각 유형에 따라 성별, 부모님의 결혼상태, 연령, 가정형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소수의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유형과 함께 특성을 제시하거나, 연구자가 유형을 정해놓고 그 유형에 따른 응답 비율을 제시하며 특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개입을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응답에 따른 반응을 토대로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구조화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각 유형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등 다양한 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지역 소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출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에 있는 506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었다.

남자는 283명(55.9%), 여자는 223명(44.1%)였으며, 연령은 15-16세가 28명(5.5%), 17-19세가 390명(77.1%), 20세-24세가 88명(17.4%)이었다. 학업중단 기간은 1년 이내

가 259명(51.2%)이었으며, 1년 이상-3년 이내가 182명(36.0%), 3년 이상된 청소년도 65명(12.8%)이었다. 학업중단 시기는 중학교 시기가 134명(26.5%)이었고, 고등학교 시기가 372명(73.5%)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연령, 성별, 학교를 그만둔 시기, 학업중단 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선행연구를 고찰(윤철경, 2010; 이경상, 조혜영, 2005)하여, 학업중단 이후 향후 계획을 묻는 7문항을 선정하였다. 응답은 '있다', '없다'로 답변하게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교육준비로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준비', 학교로의 '복학 준비'를 제시하였다. 취업준비로는 '직업훈련 준비', '취업준비'를 제시하였으며, 진로미결정에 대한 항목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름'과 '특별한 계획이 없음'과 '아르바이트 준비'를 포함하였다.

## 3. 분석방법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범주변인(categorical variable) 분석모형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분석방법인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이는 관측자 중심의 기법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측자를 동일한 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에 속할 확률을 찾아내어 계층 간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신택수, 2010), 이 분석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잠재계층분석은 추출되는 계층의 수를 자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층구분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K-means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경우, 추출되는 군집의 수를 이론에 입각해 사전에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잠재계층을 파악함에 있어, 이론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계층의 수를 정하지 않는다. 즉, 본 연구가 기존이론의 검증이라기 보다는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어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에 근거한 문항의 반응패턴을 귀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계층의 수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모형검증치(model fit

statistics)를 제공하기 때문이다(김사현, 홍경준, 2010).

둘째, 관찰된 범주형 지표들로부터 잠재적 계층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은 범주변인인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는데, 범주변인의 통계적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장점은 계층선택의 기준이 논리적인데 있다. 관찰된 범주변인과 관찰되지 않은 잠재적 범주변인의 확률적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각 사례들이 각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을 도출한다. 즉, 잠재계층분석은 행동에 근거한 기준 요소들(Behavioral indicators)이 정확한 조건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의 관계를 갖는다는 가정을 한다. 여기서 확률이란 서로 연관을 갖는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잠재계층의 확률을 의미한다.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을 계층별로 유형화하고 각 계층별 차이를 연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층별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아미, 신택수, 2012).

범주형 변인의 잠재계층분석(LCA)에 대한 기본식은 아래와 같으며, 여기서  $y_i$ 는 사례  $i$ 에 대한 종속변수의 벡터이고,  $c$ 는 범주형 잠재변수,  $k$ 는 계층을 각각 나타낸다(Vermunt & Magidson, 2002).

$$P(y_i = 1) = \sum_{k=1}^K P(c = k)P(y_i = 1|c = k)$$

이러한 분석방법을 위해 Mplus 5.21(Muthén & Muthén, 2007)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되는 모형검증치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잠재계층이 결정되면, 조건부 확률에 입각해 모든 개인의 데이터가 도출된 계층들에 각기 할당되는 바, 그 결과를 통해 계층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잠재계층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잠재계층을 잘 설명하는 적합모형을 찾기 위해 2개부터 4개 까지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잠재계층의 수리 알고리즘이 모형의 복잡성과 잠재 계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선택수, 2010). 최적모형은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adjusted BIC(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Entropy, LMR(Lo-Mendell-Rubin),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의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Sullivan, Chillds & O'Connell, 2010;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잠재계층분석(LCA)에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우선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인 세 개의 IC(Information Criteria)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AIC, BIC, 그리고 adjusted BIC이다(선택수, 2010). 이는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모수의 수와 표본 수에 따라 서로 다른 패널티를 부과하는 IC(Information Criteria) 값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적합도 지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모수를 이용하여 높은 로그-우도 수치를 만들어 내는 모형을 선호한다. 즉, IC는 그 값이 작을수록 최적의 잠재유형 수를 가진 모형임을 의미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가진 최적의 모형을 비교하는데 활용된다. 아래의 공식에서 P는 모수의 숫자이며 n은 표본 수이다.

$$\begin{aligned} AIC &= -2\log L + 2P \\ BIC &= -2\log L + P \times \log(n) \\ Adjusted\ BIC &= -2\log L + P \times \left(\frac{n+2}{24}\right) \end{aligned}$$

Entropy는 추정된 모형이 계층군의 확률을 바탕으로 모형의 평균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각 계층이 분명하게 분류되었는지 모형의 비교와 평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Crosby et al., 2009). Entropy값은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

Lo-Mendell-Rubin(LMR)과 부트스트랩 최대우도 비율 검증(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은 통계검증을 이용한 적합도 지수로, LMR은 k-1 집단 모형과 k 집단 모형

간의 로그최대우도 차이에 대한 분포 추정(Approximation of the distribution)을 이용한 것이다. LMR은 다른 계층 수를 지정한 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하기 위해 이용되며, 동일한 모수를 사용해야 한다. 결과에 대한 확률(p-value) 값을 제공하는데, 만약 유의미한 검증 결과를 얻었다면 k집단 모형이 k-1집단 모형보다 적합도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LRT도 LMR과 유사한 확률(P-value) 값을 이용한 모형 적합도 비교를 채택하지만 표본에서 다량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편향되지 않는 로그우도 차이 분포를 추정하는 것이다(신태수, 2010). BLRT는 최근에 나온 통계검증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혼합모형에서 많이 활용되는 적합도 지수는 아니나, 최근 몇 년 간의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서 우수한 정확도를 보이는 지수로 입증받고 있다(Nylund et al., 2007).

이를 고려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계층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CA)을 실시한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계층별 IC와 Entropy

IC \ 계층수(k)	2	3	4
AIC	3,972,400	3,936,800	3,930,621
BIC	4,035,798	4,034,010	4,061,644
adjusted BIC	3,988,186	3,961,006	3,963,246
Entropy	.792	.816	.868

표 2

계층간 LMR과 BLRT 검증 결과

Likelihood testing	계층1 vs 계층2	계층2 vs 계층3	계층3 vs 계층4
LMR	118.354***	51,600***	21,742
BLRT	118.354***	51,600***	22.179*

참조: 해당 검증 값은 집단 간 -2LL(로그 최대우도)의 차이임

\*  $p < .05$ , \*\*  $p < .01$ , \*\*\*  $p < .001$

잠재계층분석 결과, 잠재계층이 4개일 경우 정보-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다른 계층보다 AIC(3930.621)가 가장 낮았으나, BIC(4061.644)와 adjusted BIC(3963.246)가 다른 잠재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ntropy(.868)의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LMR(21.742,  $p=.26$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개의 잠재계층을 가진 모형과 k-1개의 계층을 가진 잠재계층을 비교해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k-1개인 3개의 잠재계층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층수가 2개일 경우 LMR(118.354,  $p=.00$ )과 BLRT(118.354,  $p=.00$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Entropy(.792)의 지수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합도 지수인 AIC(3972.400), BIC(4035.798), adjusted BIC(3988.186)의 적합도 지수가 잠재계층이 3개일 경우의 AIC(3936.800), BIC(4034.010), adjusted BIC(3961.00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계층수가 3개 일 경우 AIC, BIC, adjusted BIC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Entropy(.816)의 지수도 양호하고, LMR(51.600,  $p=.00$ )과 BLRT(51.600,  $p=.00$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학업중단의 향후 계획에 대해 3개의 잠재계층이 최적의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 2. 잠재계층의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의 잠재계층에 대한 해석은 각 설문의 범주에 응답할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 잠재계층의 조건부 응답확률에 대한 결과는 표 3,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미결정중심형’으로 유형이 분석되었다. 이 유형은 ‘특별한 계획이 없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름’ 문항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특별한 계획이 없음’에 대해 응답할 확률이 87.1%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름’에 응답할 확률이 54.6%로 분석되었다. 또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준비’에 대해 응답할 확률이 49.7%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르바이트 준비’에 응답할 확률은 34.6%, ‘취업준비’

에 응답할 확률은 2.8%, 직업훈련 준비에 응답할 확률은 8%, 복학준비에 응답할 확률은 0%로 분석되었다. 이는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모름’과 ‘특별한 계획이 없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에 대해 응답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결정 중심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27.1%가 이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두 번째, ‘미래준비형’으로 유형이 분석되었다. 이 유형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준비’에 대해 응답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타유형에 비해 ‘취업준비’와 ‘직업훈련 준비’에 대해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모름’ 문항에 응답할 확률이 20.4%, ‘특별한 계획이 없음’에 대해 응답할 확률이 13.8%로 나타났다. 즉, 이 계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무엇을 해야 할 지 알고 있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준비’에 응답할 확률이 83.3%, ‘복학준비’에 대해 응답할 확률은 0%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에 대해 응답할 확률은 49.3%, ‘직업훈련 준비’에 응답할 확률은 27.7%, ‘아르바이트 준비’에 응답할 확률은 39.3%로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든 유형의 청소년들이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에 대한 욕구는 가장 높고, 미래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에 다시 복학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으나, 취업 준비, 직업훈련 준비에 응답할 확률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계층은 복학을 통한 학력취득이 아닌,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과 함께 직업훈련과 취업준비를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미래준비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58.3%가 이 유형으로 구분되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진학준비형’으로 유형이 분석되었다. 이 유형은 ‘복학준비’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준비’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모름’ 문항에 응답할 확률이 17.6%, ‘특별한 계획이 없음’에 대해 응답할 확률이 13.5%로 나타났다. 요컨대, 진학준비형은 미래준비형과 유사하게 청소년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 알고 있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준비’에 대해 응답할 확률이 67.6%이며, ‘복학준비’에 대해 응답할 확률이 100.0%로 나타나 학업지속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아르바이트 준비'에 응답할 확률은 20.3%, '취업준비'에 응답할 확률은 20.3%, 직업훈련 준비에 응답할 확률은 8.1%로 낮게 나타나, 다른 계층에 비해 검정고시, 복학의 학업지속을 준비하는 계층으로 나타나 '진학준비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응답자의 14.6%가 이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표 3

3개 잠재계층의 조건부 응답확률

향후 계획		잠재계층(Latent Class)		
		미결정중심형 (27.1%)	미래준비형 (58.3%)	진학준비형 (14.6%)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준비	있다	0.497	0.833	0.676
	없다	0.503	0.167	0.324
아르바이트 준비	있다	0.346	0.393	0.203
	없다	0.654	0.607	0.797
취업준비	있다	0.028	0.493	0.203
	없다	0.972	0.507	0.797
직업훈련준비	있다	0.080	0.277	0.081
	없다	0.920	0.723	0.919
복학 준비	있다	0.000	0.000	1.000
	없다	1.000	1.000	0.000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름	있다	0.546	0.204	0.176
	없다	0.454	0.796	0.824
특별한 계획이 없음	있다	0.871	0.138	0.135
	없다	0.129	0.862	0.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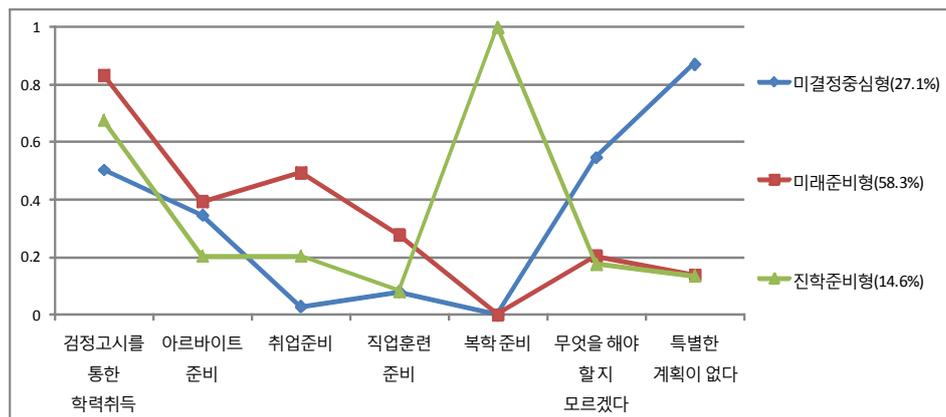


그림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구조와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의 잠재계층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미결정중심형이 97명(34.3%), 미래준비형이 149명(52.6%), 진학준비형이 37명(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미결정중심형이 40명(17.9%), 미래준비형이 146명(65.5%), 진학준비형이 37명(16.6%)이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의 잠재계층 유형을 살펴보면, 15-16세 집단의 경우 미결정중심형이 13명(46.4%), 미래준비형이 11명(39.3%), 진학준비형이 4명(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17-19세 집단에서는 미결정중심형이 108명(27.7%), 미래준비형이 218명(55.9%), 진학준비형이 64명(16.4%)이었다. 20세 이상 집단의 경우, 미결정중심형이 16명(18.2%), 미래준비형이 66명(75.0%), 진학준비형이 6명(6.8%)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에 따라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중단 기간은 윤철경(2011)이 제시한 학업중단 기간을 고려하여, 단기(1년 미만), 중기(1년~3년 미만), 장기(3년 이상)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업중단 기간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의 잠재계층 유형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기간이 단기인 경우 미결정중심형이 77명(29.7%), 미래준비형이 142명(54.8%), 진학준비형이 40명(1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기간이 중기인 경우에는 미결정중심형이 50명(27.5%), 미래준비형이 99명(54.4%), 진학준비형이 33명(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미결정중심형이 10명(15.4%), 미래준비형이 54명(83.1%), 진학준비형이 1명(1.5%)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에 따라 학업중단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중단 시기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의 잠재계층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 미결정중심형이 40명(29.8%), 미래준비형이 71명(53.0%), 진학준비형이 23명(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 미결정중심형은 97명(26.1%), 미래준비형이 224명(60.2%), 진학준비형이 51명(13.7%)이었으며, 각 유형에 따라 학업중단 시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업중단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변수	잠재계층(Latent Class)			χ <sup>2</sup>	
	미결정중심형 (n=137)	미래준비형 (n=295)	진학준비형 (n=74)		
성별	남성	97(34.3)	149(52.6)	37(13.1)	16.868***
	여성	40(17.9)	146(65.5)	37(16.6)	
연령	15-16세	13(46.4)	11(39.3)	4(14.3)	17.351**
	17-19세	108(27.7)	218(55.9)	64(16.4)	
	20세 이상	16(18.2)	66(75.0)	6(6.8)	
학업중단 기간	단기 (1년 미만)	77(29.7)	142(54.8)	40(15.5)	21.083***
	중기 (1-3년 미만)	50(27.5)	99(54.4)	33(18.1)	
	장기 (3년 이상)	10(15.4)	54(83.1)	1(1.5)	
학업중단 시기	중학교	40(29.8)	71(53.0)	23(17.2)	2.206
	고등학교	97(26.1)	224(60.2)	51(13.7)	

\*\*\*  $p < .001$ , \*\*  $p < .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계획에 일정한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각 계층의 특성을 유형화하며,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잠재계층 분석을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은 미결정중심형, 미래준비형, 진학준비형의 3개의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미결정중심형과 진학준비형은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유형이다. 미결정중심형은 이경상과 조혜영(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 진학준비형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유형으로 윤철경(2010)은 학습형, 이경상과 조혜영(2005)은 순수진학형, 이숙영과 남상인(1997)은 정착노력형의 세부유형으로 진학형을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5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준비형과 같은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은 이제까지 제시되지 않았던 유형이다. 이렇게 그간의 연구와 다른 유형이 나타난 이유는 그간의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을 소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례를 유형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유형을 사전에 정해놓고 응답자의 한가지 반응을 측정하여 그 유형을 단순 총합하여 나타난 한계였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학업중단 유형은 진학형, 취업형, 아르바이트형 등 하나의 계획만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향후 다양한 계획에 대해 범주형 변인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즉, 모집단 내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heterogeneity)을 밝혀내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향후 계획의 다양한 반응에서 특정한 경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잠재변인의 이질적 특성을 계층별로 밝혀내고 하위집단의 수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잠재계층분석(LCA)을 실시한 결과 미결정중심형, 미래준비형, 진학준비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향후 계획이 복잡적이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미래준비형 유형을 밝혀내었다.

둘째, 미래준비형은 58.3%로 학업중단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취득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 취업에 대한 준비도 타 유형보다 높게 고려하고 있다. 선행연구(이경상, 조혜영, 2005; 이숙영, 남상인, 1997; 윤철경, 2010; 주영신, 2007)를 통해 분석된 유형은 학업준비, 취업준비, 미결정, 기타형 등으로 향후 계획에 따라 단일유형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준비, 취업준비 등 하나의 계획만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하지만, 학업중단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미래준비형은 비록 학교를 중단했지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러한 의지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과 함께 직업훈련, 취업준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일유형만을 제시하던 선행연구와 차별적인 유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많은 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과 함께 직업훈련, 취업준비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유형은 타유형에 비해 20세 이상의 청소년들과 학업을 중단한 지 3년 이상된 장기 학업중단자들에서 특히 높은 비율(83.1%)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20세 이상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력취득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를 통한 경제활동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취업이 가능한 연령대가 되어 취업을 하고자 하나 고학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안정된 고용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졸업장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셋째, 미결정중심형은 27.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미결정중심형은 타유형에 비해 저연령층인 15-16세에서 높은 비율(46.4%)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결정중심형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결정중심형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업중단 기간이 단기일 때보다 장기일 때가 미결정중심형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 유형의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준비에 대한 욕구는 있었지만, 타유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욕구는 전혀 없고, 미래에 특별한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결정중심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5-16세 집단, 남자 청소년, 학업중단 기간이 단기인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진학준비형은 14.6%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 유형의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을 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학교복학에 대한 반응 확률이 10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중단 이후 다시 학업에 복학한 복귀생들은 대부분 자아개념이 낮고, 무기력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부족하고 중도탈락율이 높다(오혜영 외, 2011). 조규필 외(2011)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에 복학하더라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할 위험이 많아 학교에 적응하여 안정된 사회생활로 접어들기까지는 쉽지 않다고 하면서 복학이후의 어려움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복학 준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도탈락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며, 학교내의 복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복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복학준비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혜영 외(2011)는 주변사람들의 정서적 지지와 자극을 주는 친구, 상담과 멘토링, 주위사람들의 도움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각오를 다지고 습관을 변화시키고, 가족에게 다시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조규필 외, 2011). 이를 고려하여, 복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구성, 상담, 지

지자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을 고려하고 있다. 학업중단 유형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준비’ 문항에 응답할 확률이 미결정중심형에서는 49.7%, 미래준비형에서는 83.3%, 진학준비형에서는 67.6%로 모든 유형에서 높은 응답 확률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비록 학교는 중단했지만, 학업은 시간이나 공간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로서, 학업을 지속하고 싶어한다는 선행연구(금명자, 2008; 오혜영 외, 2011; 이경상, 조혜영, 2005)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복학보다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시 복학을 하는데 있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어려움,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 어린 동급생들과 함께 다녀야 하는 창피함, 학업중단 이후 나타난 생활습관 변화의 어려움, 선생님들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이다(오혜영 외, 2011). 하지만, 학교 수업이 재미없어 공부를 하기 싫었다던 학업중단 청소년도 학교를 그만둔 이후 적응과정에서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경험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을 고려하게 된다. 이는 이혜숙과 서은정(2011)의 연구에서 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어도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어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여섯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 중, 미결정중심형과 미래준비형의 경우 복학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미결정중심형과 미래준비형 청소년은 진학준비형 청소년과는 달리 학교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학업을 그만두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된 대책을 보면, 일부의 경우 이들을 학교로 되돌려 보내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불과 14.6%에 해당하는 진학준비형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해서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들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 할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계획에 따른 변인만을 포함하여 유형을 구분하였으나 학업중단의 개인, 또래 등 다양한 원인뿐만 아니라 연령, 학업중단 시기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

보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여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을 구분하는 예측변인과 유형에 따른 적응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업중단 유형에 따라 적응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결정중심형, 미래준비형, 진학준비형의 유형에 따라,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맥락과 특성을 이해하고 각 유형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 과제 등을 고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준비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에 대해 유형별로 제시함으로써 적응과정을 보다 촉진할 수 있다.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 분야의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횡단적 연구에 머물렀지만 향후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발달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한 발달 혹은 변화는 단기간에 일어나기 어려워, 적응과 관련한 변인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적조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업중단 유형을 통해 종단연구를 실시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석영, 양은주, 방나미 (2011).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19(1), 89-125.
- 고기홍 (2003).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와 상담적 개입방안. **학생생활연구**, 24(1), 117-136.
- 교육통계서비스 (2013). www.kedi.or.kr.
- 구본용, 유제민 (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3-146.
- 권해수, 서정아, 정찬석 (2007). 대안학교와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의 학교밖 경험 비교: 개념도 방법론을 통하여. **상담학연구**, 8(2), 657-674.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99-317.
- 김경식 (1997). 중·고교 중퇴생 문제의 고찰. **한국교육사회학회**, 7(1), 1-24.
- 김범구 (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사현, 홍경준 (2010).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연구. **사회복지정책**, 37(2), 95-121.
- 김순규 (2004). 가족환경 요인이 청소년 학업중퇴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3), 43-63.
- 남기곤 (2011).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시장경제연구**, 40(3), 63-94.
- 박창남, 도종수 (2003). 청소년 학업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207-238.
- 박현선 (2003).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기반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53, 75-104.
- 박현선 (2004). 학업중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69-82.
- 배영태 (2003). 학교 중도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 11(2), 23-35.
- 서우석, 정철영, 이광호, 채영병, 허영준, 김재호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

- 탈락 개선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 방안. **직업교육연구**, 26(1), 106-133.
- 성윤숙 (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손순용 (2005). 학교 밖 보호관찰 청소년 학력취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 73-96.
- 신태수 (2010). 중단프로파일 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잠재집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교육평가연구**, 23(3), 641-664.
- 신현숙, 구본용 (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회·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6(3), 121-145.
-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 조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2007).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 개발연구. **상담학연구**, 8(4), 1657-1675.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 윤철경 (2010). **학업중단 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이경상, 조혜영 (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이상균 (2009). 청소년기 경비행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병렬적 잠재성장모형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7, 243-266.
- 이숙영, 남상인 (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 이혜숙, 서은정 (2011).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방안**. 서울: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 조규필, 박현진, 김래선, 김범구, 양대회, 이현진, 황수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 학교 재적응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 조아미 (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 조아미, 신태수 (201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유형과 특성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3(2), 161-184.
- 조윤주 (2010). 청소년의 인터넷일탈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17(6), 171-195.
- 주영신 (2007).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 후 삶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선미, 신현숙 (2007). 고등학생과 진로적응훈련 중인 중퇴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1), 229-245.
- 황성혜 (2010). 청소년 학교 부적응의 발달궤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7(4), 211-239.
- 홍세희, 노언경, 박민선 (2010). 청소년의 기출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생태체계학적 변수들과의 관련성 검증. **청소년학 연구**, 17(2), 181-201.
- Crosby, R. D., Wonderlich, S. A., Engel, S. G., Simonich, H., Smyth, J., & Mitchell, J. E. (2009). Daily mood patterns and bulimic behaviors in the natural environ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 181-188.
- Davidoff, A., Kenny, G. (2005). *Uninsured americans with chronic health conditions: Key from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Washinhton, DC: Urban Institute.
- Dupper, D. R. (1993). Preventing school dropouts: Guidelines for school work practice. *Social Work in Education*, 15(3), 141-149.
- Franklin, C. (1992). Family and individual patterns in a group of middle-class dropout youths. *Social Work*, 37(4), 338-343.
- Muthén, & Muthén (2007). *Mplus user's guide*(Version 5.21).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Rumberger, R. W. (1987). High school dropouts: A review of issues and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7, 101-121.
- Rumberger, R. W. (2011). *DROPPING OUT: Why students drop out of high school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ullivan, C. J., Chillds, K. K., & O'Connell, D. (2010). Adolescent risk behavior subgroups: An empirical assess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5), 541-562.
- Sum, A., Khatiwada, I., McLaughlin, J., & Palma, S. (2011). *High school dropouts in chicago and illinois: The growing labor market, income, civic, social and fiscal costs of dropping out of high school*. boston, MA: Northeastern University.
- Vermunt, Jeroen K., & Jay Magidson. (2002).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In J. A. Hagenaars, & A. L. Mccutcheon (Eds.),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BSTRACT

###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chool dropouts : A latent class analysis approach

Kim, Bungoo<sup>\*</sup> · Cho, Ami<sup>\*\*</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chool dropouts, to examine their latent class and classify them based on measurements such as latent class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middle and high school dropouts. With the exception of Jeju Island, youth counseling centers and youth shelters were enlisted to participate in this nationwide survey. Mail and in-person surveys were conducted during June and July, 2012. The data from 506 completed surveys were then analyzed. 48 partially completed surveys were not included in the study. Latent Class Analysis (LCA) was used to examine the school dropouts' latent class; whereas the observed variables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Following this, the possibilities were measured to determine if the observed variable would be included in each class. In order to identify the optimum number of class in LCA, 2-4 latent classes were examined; The Goodness of Fit Index (GFI) of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MR, BLRT were all considered, 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ree was the optimum number of latent class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ass were also examined and named accordingly. The school dropouts with the highest possibility of choosing the answer indicating that they have no future plans or ideas were then designated as the "indecision-centered type

---

\*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 Myong-Gi University

(27.1%).” The youths with the highest possibility of selecting the answer reflecting that they are planning to get a GED degree and find a job were designated as the “future preparation type (58.3%).” Youths most likely to choose the answer indicating that they plan to return to school or study for the GED were termed as being of the “academic preparatory type (14.6%).” Given these study results, a new model of school dropout youth types was suggested, and the kinds of support mechanisms for each school dropout type were also suggested.

Key Words : school dropout, latent class analysis, types of school dropout

투고일 : 2013. 3. 9, 심사일 : 2013. 6. 12, 심사완료일 : 2013. 7. 1

